

광주·전남 고위험군 임신부, 결국 원정 출산 내몰렸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세쌍둥이 임신부 등 4명 수도권 이송 분만 잇따라 전공의 이탈 속 중증 신생아 돌봄 의료인력 태부족... '우려가 현실로'

광주·전남 고위험군 임신부 원정출산 우려(9월 9일자 광주일보 1면)가 결국 현실화 됐다.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중증 신생아를 돌보는 의료인력이 부족해 고위험군 임신부들이 서울 등 타지역으로 이송돼 분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광주지역 한 상급병원에 따르면 최근 고위험군 임신부 4명이 타지역 상급병원으로 이송돼 분만했다.

미숙아 등 중증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소아과 의료진 부족 때문이다.

이 상급병원 신생아 중환자실(NICU)은 지난

11일 산부인과에 "32주 이하 미숙아 다태아분만은 타병원으로 이송을 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32주 이하 미숙아, 다태아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면 소생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태아수에 맞춰 근무해야 하지만, 의정갈등으로 인해 이를 담당할 의료진이 없어 타기관 이송을 요청한 것이다.

실제 이 병원에서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전문의 1명이 주중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고, 야간과 공휴일에는 촉탁의 4명이 순환하면서 1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병원도 의료진이 부족해 이송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쌍둥이를 임신한 A(27주 4일)씨는 지난 2일 조기분만 진통으로 해당병원에 입원해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받던 중 지난 12일 분만이 임박했으나 NICU 사정상 타병원으로 이송문의를 해야만 했다.

당일 광주지역 다른 상급병원을 비롯해 전국 13개 상급병원에 문의했으나 모두 '수용불가'였다. 하루 동안 겨우 벤틀다 13일 다시 전국 상급병원에 전원을 문의해 다행히 서울지역 상급병원으로 이송돼 분만을 하게 됐다.

쌍둥이 임신 31주로 지난 12일 입원한 B씨의 경우에도 조기분만진통으로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 받았다.

지난 17일 오후 자궁수축억제제를 최고용량으로 투여했는데도 출산이 임박해지자 의료진은 전국 16개 상급병원에 전원을 문의했지만 모두 불거

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의료진은 자궁수축억제제(유포파) 추가 사용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B씨에게 고지하고 추가 투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B임신부도 당직근무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를 동원하고 서울 상급병원으로 전원됐다.

쌍둥이 임신 25주로 지난 4일 입원중인 C씨의 경우에도 지난 16일 초음파 검사결과 경부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분만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해당 병원 NICU 사정상 3일 뒤인 19일 서울지역 상급병원으로 겨우 이송됐다.

세쌍둥이를 임신해 타병원에서 선택적 유산 시술을 받고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 18일 광주 친정집에 찾은 D씨의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갑자기 선택적 유산된 태아를 분만하게 돼 119를 통해 해당병원 응급실로 들어왔다.

하지만 해당 병원 NICU사정상 입원이 어렵다는

판단에 응급처치를 거쳐 경기도 지역 상급병원으로 이송됐다.

NICU에 병상의 여유가 있어도 의료진이 없는 상황에서 임신중독, 조미숙아(24-25주) 분만 압박, 양수터짐, 자궁내 감염, 태반 출혈 등의 고위험군 임신부는 급작스런 분만상황을 맞게 되면 결국 타지역으로 원정출산을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광주지역 상급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고위험군 신생아를 나올 경우 관리를 할 의료진이 없는 상황에서 고위험군 산모들의 분만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나마 입원해 있는 임신부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리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하면 태아와 산모가 숨지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지역의 농민들이 26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벼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제공)

광주·전남 농민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하라"

광주·전남 농민들이 정부에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는 26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멸구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농민들은 벼멸구 피해를 입은 벼를 태우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농민들은 "올해 여름 폭염으로 세대교체 주기가

짧아진 벼멸구가 창궐하면서 전남 지역 벼 재배면적의 15% 이상이 타포타고 있다"며 "폭염과 마찬가지로 벼멸구 피해도 자연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품질 쌀 유통을 막기 위해 피해 벼를 전량 구매하겠다고 밝혔지만 농민들은 낮은 등급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생산비 보전이 힘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농민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벼멸구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벼를 정부가 적정 가격에 매입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벼멸구 피해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정부는 벼멸구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해 심각한 타격을 받은 농가를 구제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까지 전남의 벼멸구 피해 면적은 22개 시·군에서 1만 9603ha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 고흥(2667ha)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해남(2554ha), 보성(1988ha), 장흥(1776ha), 무안(1500ha)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우승희 영암군수 2심도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우승희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우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우 군수의 부인 A씨 등 2명에게

는 각 벌금 90만원과 70만원이 선고됐고, 나머지 3명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우 군수와 부인 등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관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과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 군수 등의 행위는 국민의사

를 왜곡하고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사실을 알고 기존 경선 결과는 무효처리하고, 재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직후 우 군수는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영암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고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심야 순천도심서 10대 여성 흥기 피습 사망 '묻지마 범행' 가능성...2시간 만에 30대 용의자 긴급체포

심야시간 순천 도심 한복판에서 10대 여성을 흥기로 찢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은 A(30)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2시 40분경 순천시 한 병원 주차장에서 B(17)양을 흥기로 찢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슴과 배 등을 찢린 B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사건 당시 목격자가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듣고 달려오자 B양을 덮치고 있던 A씨가 급히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는 사람이나"는 목격자의 물음에 B양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친구를 잡까지 바래다준 후 귀가하던 중

범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증언과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을 나섰고, 사건 발생 2시간 여만에 현장에서 1.5km 떨어진 주택가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만취한 상태로 행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이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에 사건 현장과 검거장소 사이의 한 거리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흥기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또 A씨에 대한 정신감정도 진행 중이다.

A씨는 인근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상인으로,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영풍한 운전자 추적 '음주헌터 유튜버' 송치

가로막은 차량 음주운전 안내 최근 광주서 사망사고 초래도

음주심 운전자들을 추적해 방송을 하는 유튜버가 영풍한 운전자를 추적하다 경찰에 넘겨졌다.

최근 광주시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는 30대 운전자가 이 유튜버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갓길에 주차된 대형화물차를 들이받고 숨지기도 했다.

광주광산경찰은 '음주운전 헌터'를 자칭하는 유튜버 A씨와 구독자들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 혐의로 최근 경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

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광주시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5-6명의 구독자와 함께 차량 여러 대를 동원해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멈춰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후 B씨의 주행을 가로막았지만, B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씨는 A씨와 현장에 있던 구독자들을 고소했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사를 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